



#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APP)의 이용과 그들의 중국적 그리고 한국적 사회화\*

문성준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우 분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서 탁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스마트폰은 통화라는 소통적 기능성과 인터넷이 가능한 기능성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필수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의 사용이 그들의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번역 및 역번역 방법(A translation & back-translation method)을 통해 설문지간의 내용적 등가성을 분석한 후 중국어 설문지와 한국어 설문지를 만든 후 서베이를 실시했다. 다양한 가외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위계적 회귀 방법을 실시했다. 가설 검정의 결과로,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의 이용은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한국적 사회화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국 앱의 이용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적 사회화를 방해하였으며, 한국적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어:** 중국인 유학생, 사회화, 스마트폰

---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maclean97@hanmail.net, 주저자 및 교신저자

\*\*\* newben521@naver.com

\*\*\*\* alazhuo@qq.com

# 1. 서론

한국 정부가 2001년 발표한 국내 대학 외국인 지원 정책방안 이후,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국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학평가 경쟁구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가 비중이 높은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성시일, 2013). 유학생들의 분포국들 중에서 중국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가 1992년 8월 24일 선언된 한중 수교 이후 한중간의 교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파르게 상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외모의 유사성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 위치하여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최선의 유학지로 선택되었다. 현재까지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은 타국가인 몽골, 베트남, 일본, 대만, 미국 출신의 유학생들에 비교해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양만기, 2013, 정유선, 2014).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유학생들과 관련된 연구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문화적인 이질감, 문화 가치,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등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김춘화·유홍녕·이상수, 2015; 리첸첸·오인수·이수경, 2016; 이예슬·김은하, 2015; 이홍직, 2011; 진민진·배성만·현명호, 2011), 미디어 관점적인 실증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평균 나이가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 시기인 20대로 구성되어 첨단 기기들의 이용에도 익숙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인하여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기존 중국 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중국 채팅인 위챗(WeChat)<sup>1)</sup>을 이용하여, 중국 문화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성이 뛰어나 기존의 고정화된 컴퓨터에서만 접촉 할 수 있는 인터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력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젊은 유학생들의 경우 현대적 기기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기성세대들에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덜하다.

이 논문은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의 사용이 그들의 사회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부연설명하자면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앱이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시키고, 한국적 사회화를 늦추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앱의 사용이 그들의 중국적 사회화를 늦추고, 한국적 사회화를

---

1) 중국판 카카오톡으로서, 중국에서 제일 대중화된 위챗(웨이신)은 텐센트가 2011년 1월 제공한 모바일 메신저로, 5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다.

촉진시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논문들이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차별감에 대해 심리학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 졌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미디어 기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연령 측면에서 기존 이민자 그룹들보다 젊은 유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의 활용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효과를 측정하기엔 최적의 표본이며, 이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미디어 기기의 효과 연구에도 유용할 것이다.

## 2. 문헌 연구

### 1) 미디어 의존 이론 (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

볼-로키치와 더 플로러(Ball-Rokeach & Defleur, 1985)는 미디어 의존 이론을 소개하면서, 현대사회는 미디어, 수용자, 그리고 사회 간의 유기체적인 연관, 즉 삼분법적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했다. 부연설명하자면, 현대사회에서 상호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된 3가지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인 역할(Dependency relationships)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주장이다. 미디어의 내용은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수용자들의 인지적 변화를 초래시키며 이는 결국 사회변화를 유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의 역할보다는 그 수용자가 그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 분석을 하며, 주어진 미디어가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따라 미디어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라는 ‘수용자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언제나 휴대 가능한 스마트폰에 한국 앱을 설치하여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고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및 사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앱을 계속 사용하여 앞서 제시한 삼분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미디어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미디어 의존 이론과의 해석과 일치된다. 즉,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많을수록 더욱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크질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의 욕구 즉, 중국 앱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한국 앱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중국적 사회화, 또는 한국적 사회화에 대한 시각도 바뀔 것으로 사료된다.

미디어 의존 이론은 기존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연구에서도 인용이 되었는데, 임지혜·최정화(2009)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의존성을 연구하면서 미디어 의존 이론을 이용했으며, 김진영(2003)도 미국 미시시피주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의존 이론을 적용했으며, 박정익·성지연(2012) 또한 미디어 의존 이론을 재미 한인들의 문화변용 전략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의 분석에 적용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스마트폰의 활성화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약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자국 소식에 대한 접촉의 방법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 2) 유학생들의 사회화

최근 들어 다문화 환경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연구되고 있다(김성수·이상경·안효자, 2011; 최혜영, 2015; Chudek, Cheung, & Heine, 2015; Vigers & Tunger, 2010). 그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외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새로운 문화권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문화적응(cultural adjustment) 과정을 연구했다. 지속적인 상호 접촉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이주 후, 환경 부적응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적응이 진행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상이한 문화 체계 간의 접촉은 유학생들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진다. 현지의 미디어 또는 대인관계 등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실증적인 연구(정지에, 2010; 정윤경, 2012; 선봉규, 2014), 개인이 문화적 동화 환경에 노출되었던 시간의 길이, 즉 거주기간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uang, 2012), 연령과 언어와도 같은 도구적 측면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맹주익·노옥화, 2015; Chudek, Cheung, & Heine, 2015)들이 있다.

유학생들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에 도달했을 때, 거주기간이 길거나, 연령이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 습득이 빨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사회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연령이 많을 때 이주를 한 경우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이민자들에 비해 어려, 쉽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젊은 나이에 유학온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기성세대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연결시키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사회화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 3)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

정의철(2013)은 미디어 정책 및 교육 관계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교육은 문화간 이해와 소통 능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황상재·홍성현(2012)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뉴스 매체 이용이 그들의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으며, 뉴스 매체는 사회화의 하부 차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대영(2013)은 300명의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이용도를 분석했는데, 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량은 신문 12.0분, TV 122.4분, 인터넷 112.5분으로 분석했다. 즉,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로 인식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와 사회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이효성(2003)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해력은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안수근(2006) 또한 뉴질랜드 한국 이민자들이 현지 영어 방송의 이해력이 떨어져 한국어 매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지만, 문화적응이 진전 될수록 영어방송의 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박정익·성지연(2012)은 문화변용의 정도에 따라 미디어 이용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한국적 가치가 높은 그룹일수록 한국 미디어 이용의 빈도수가 높은 것을 밝혔고, 반대로 미국 문화에 적응을 원하는 그룹일수록 미국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차희원·조은영·백상기(2013)는 미국과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모국을 떠나 해외에 머물수록 현지에 대한 사회화가 높아지면서, 한국적 가치와 한국 미디어에 대한 이용도는 떨어지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현지에 머물면서 한국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민자일수록, 한국적 가치를 현지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이민자들의 현지 적응에 미디어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와 언어의 상이성, 환경의 변화, 지인들의 부재, 새로운 환경 때문에, 고국에 있을 때보다 사회활동이 부족한 이민자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기존 미디어와 비교해볼 때, 스마트폰에는 각종 앱을 통해 TV, 라디오, 신문 등등과도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휴대성으로 인해 훨씬 쉽게 본국과의 접촉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3. 이론의 적용 및 가설

미디어를 통해 사회화가 진행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과 그들의 사회화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실시된 연구는 많이 없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과 한국 앱의 사용이

그들의 중국적 사회화 유지와 한국적 사회화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볼-로키치와 더 플로러(Ball-Rokeach & Defleur, 1985)가 주장한 미디어 이론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도착한 후 그들의 행동 반경이 제약되어 있어, 중국적 이슈가 궁금할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을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한국적 이슈가 궁금할 경우, 새롭게 설치된 한국 앱을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는 미디어가 생산되는 곳의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Bathory & McWilliams, 1977; 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에 의해, 중국 앱의 경우, 친중국적 문화 정서를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앱에 노출될수록, 더욱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할 것(가설1)이며, 그러한 친 중국적 사회화 유지는 유학생들의 한국적 사회화를 더디게 만들 것(가설2)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미디어가 이민자들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이효성, 2002, 차희원·조은영·백상기, 2013), 또한 가설 1과 2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흥미롭게도,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설 1의 종속변인인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설 2에서 한국적 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가설 1과 가설 2에서의 실점의 합산이 영(零)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 '일정 합게임(constant sum game)'이라고도 불린다. 즉, 가설 1 그리고 가설 2의 종속변인들 간의 상호 일정 합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심귀보·김지윤·이동욱, 2004).

동시에,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국 앱에 대한 노출이, 그들의 중국적 사회화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설3)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한국 앱이 그들의 한국적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설4)에 대한 제로섬 게임이 동시에 발생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했다.

**연구문제 :**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의 사용이 그들의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의 이용은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 시키는데 유용하다.

기설 2 :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의 이용은 한국적 사회화를 방해 한다.

기설 3 :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국 앱의 이용은 중국적 사회화 유지를 방해 한다.

기설 4 :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국 앱의 이용은 한국적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 4. 연구 방법과 절차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지는 2명의 한국인, 그리고 2명의 중국인에 의하여 번역 및 역번역 기법(A translation & back transl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작성했다. 먼저 모든 설문 문항들은 한국어로 만들어졌고, 이후 중국어로 번역을 했다. 다시 중국어 설문지를 한국어로 역번역시켰고, 원본 한국어 설문지와 재번역 된 한국어 설문지와의 내용적 동위성(Equivalence)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지간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후 배포용 한국어 설문지와 중국어 설문지를 만들었다. 한국어 설문지와 중국어 설문지간에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중국어 설문지를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된 (Randomly selected sample) 중국 유학생들에게 배포를 했다.

서베이에 참여한 샘플들은 ① 현재 중국국적으로, ② 국내에 거주하고, ③ 18세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을 이용했다. 모집단(Population)을 대변할 수 있는 샘플링(sampling)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지 224부를 배포 후, 불성실한 답변, 분실, 무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199부를 수거했다.

샘플의 성별(남 = 92명, 46.2%, 여 = 106명, 53.3%), 현재 나이(M = 22.29세, SD = 3.18), 한국어 수업 청강 여부(청강 = 128명, 64.3%, 비청강 = 63명, 31.7%), 졸업 후 한국 거주 의향(의향 있음 = 105명, 52.8%, 의향 없음 = 76명, 38.2%), 한국 거주 기간(1년 이하 = 49명, 25.7%, 1년 이상 3년 이하 = 91명, 47.6%, 3년 이상 = 51명, 26.7%)을 분석했다. 분석한 데이터에는 오류에 의한 결측 수치가 없었으며 최종 수거된 총 199개 샘플을 분석에 활용했다.

## 2)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가외변인

### (1) 중국 앱의 이용량

중국 유학생들의 중국 앱에 대한 이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 앱에 대한 이용량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 TV(M = 4.79, SD = 1.93), 중국 인터넷(M = 5.73, SD = 1.57), 중국 신문(M = 3.22, SD = 2.24), 그리고 중국 영화(M = 4.52, SD = 1.99) 항목들에 대한 일주일간의 이용도를 측정한 후 각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다. 7점 의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고, 1점으로 갈수록 중국 앱의 이용량이 부족하고, 7점으로 갈수록 중국 앱의 이용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의 값은 0.59이고, 바트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추출 방법은 일반화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했다. 프로맥스(Promax) 방식으로 요인 회전을 하여 고유값(아이겐 수치)이 1이상인 2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나 첫 번째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된 항목들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상호간 군집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네 개의 중국 앱들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Cronbach's  $\alpha = 0.69$ )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치를 생산했기 때문에, 네 개의 항목들을 합산한 후 중국 유학생들의 중국 앱의 이용량을 측정했다.

### (2) 한국 앱의 이용량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앱의 이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앱의 이용량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 TV(M = 3.06, SD = 1.95), 한국 인터넷(M = 3.38, SD = 1.89), 한국 신문(M = 1.79, SD = 1.42), 그리고 한국 영화(M = 3.39, SD = 1.93)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Cronbach's  $\alpha = 0.78$ )을 실시했다. 중국 앱을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7점 의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고, 1점으로 갈수록 한국 앱의 이용량이 부족하고, 7점으로 갈수록 한국 앱의 이용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KMO = 0.75,  $p < 0.001$ ). 앞서 사용한 일반화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고유값(아이겐 수치)이 1이상인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4가지 문항이 신뢰도 및 요인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어, 이를 합산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앱 이용량을 측정했다.

### (3) 중국적 사회화 (Chinese socialization)

중국적 사회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습,



관습, 그리고 습관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화(Socialization)란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고 대중화 되어 왔기 때문에 쉽사리,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중국 유학생들의 중국적 사회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개의 항목들에 대해 의미분별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 녹색 머리핀이나 녹색 모자를 언제나 착용하는 - 녹색 머리핀이나 녹색모자는 절대로 착용하지 않는( $M = 5.63, SD = 1.75$ ), 정월에 이발(理髮) 할 수 있는-정월에 이발을 절대 안하는 ( $M = 5.39, SD = 1.76$ ), 하객들은 결혼식 후 각자 헤어져야 하는 - 결혼식 후 신방(新房)에 언제나 몰려가는 ( $M = 5.33, SD = 1.88$ ), 음력 2월에 이발(理髮)을 절대 안하는 - 음력 2월의 이발은 행운을 상징하기에 언제나 이발을 하는 ( $M = 5.29, SD = 1.79$ ). 1점 쪽으로 갈수록 중국식 사회화가 미약한 것을 의미하고, 7점 쪽으로 갈수록 중국적 사회화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항목들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은 보통 수준의 값인 0.68, 그리고 바트렛 테스트( $p < 0.001$ )에서 유의성을 발견하여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추출을 위해, 일반화 최소 제곱법 (Generalized Least Squares)과 프로맥스(Promax) 회전법을 사용하였고, 고유값(아이겐 수치)이 1이상인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4가지 문항들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Cronbach's  $\alpha = 0.76$ ).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된 4가지의 문항들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했는데, 그 수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중간 값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수치가 미미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 (평균 21개월) 중국적 사회화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비대칭도(skewness)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미약한 비대칭이 발생한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4가지 문항이 신뢰도 및 요인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중국적 사회화란 구성개념을 측정했다.

#### (4) 한국적 사회화 (Korean Socialization)

한국적 사회화(Korean socialization)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고유의 풍습, 습관, 그리고 관습 등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한국적 사회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문항들로 구성된 항목들을 의미 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절대 안 먹는 - 언제나 먹는( $M = 4.13, SD = 2.12$ ), 깍두기를 절대 먹을 수 없는 - 언제나 먹는( $M = 3.37, SD = 2.07$ ), 김치를 절대 먹을 수 없는 - 언제나 먹는( $M = 4.04, SD = 2.04$ ). 된장을 절대 먹을 수 없는 - 언제나 먹는( $M = 3.61, SD = 2.01$ ).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고, 7점으로 갈수록 그 항목에

긍정적, 1점으로 갈수록 그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했다. 항목들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과 바트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을 확인한 후 일반화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프로맥스 기법(Promax)을 사용하여 고유값(아이겐 수치)이 1이상인 1개의 요인을 추출했으며, 전체분산의 63.66%가 설명되었다. 네 가지 항목들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79$ ) 및 요인분석에 문제가 없어 이를 합산하여 한국적 사회화란 개념을 측정했다.

### (5) 가외변인(Artifact)

종속변수인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종류는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 앱과 한국 앱의 이용량이 종속변수인 유학생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네 가지 가설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3의 변인들이 허위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 허위효과(Pseudo effects)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가외변인(Artifact)이라고 하는데, 허위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변인들을 제시하고, 미리 제어(control)를 해야 비로소 중국 앱과 한국 앱의 이용량이 종속변수인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외 변인들이 될 수 있는 변인들은 유학생들의 성별, 연령, 그들의 한국어 수업 청강 여부, 한국 거주 의향, 한국 거주 기간, 연간 가계 소득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군(Demographics)인데 연구 분석단계에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군의 효과를 제거했다. 즉, 이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의 이용도란 독립변인이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화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가, 다른 제 3의 변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절 변인들을 사전에 제거 하는 것이 목적이다.

## 5. 연구 분석

국내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중국 앱과 한국 앱의 이용양이 그들의 중국적 사회화 그리고 한국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구통계변인군과 같은 가외변인(artifact)군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했다. 회귀분석의 전제가 되는 다중공선성 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변수들이 공차한계

0.1 이상의 통계 값과 분산팽창지수(VIF) 10 미만의 통계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표 1〉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인들인 중국적 사회화 그리고 한국적 사회화에 다양한 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앞서 제시한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사전에 제어를 함으로써 제시된 가설들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째, 인구통계 변인군으로 구성된 모델에서 성별( $\beta = -0.1, p > 0.05$ ), 연령( $\beta = 0.28, p < 0.01$ ), 한국어 수업 여부( $\beta = -0.02, p > 0.05$ ), 한국 거주 의향( $\beta = -0.19, p < 0.05$ ), 한국 거주 기간( $\beta = -0.16, p > 0.05$ ), 연간 가계 소득( $\beta = 0.08, p > 0.05$ ) 등이 중국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했지만, 연령 변인과 한국 거주 의향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은 중국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연설명하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적 사회화가 높고, 한국 거주 의향이 없는 참여자일수록 중국적 사회화가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표 1〉 참조).

둘째, 그러한 인구통계 변인군들의 효과를 제어한 후 둘째 계층으로의 분석을 시작하여, 이 논문에 제시된 가설 1과 가설 3을 분석했다. 중국 앱의 이용( $\beta = 0.15, p < 0.10$ )과 한국 앱의 이용( $\beta = -0.17, p < 0.05$ ) 변인이 중국적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으며, 두 변인들은 중국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설1과 가설3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즉,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통계 변인들의 효과를 제어한 후, 중국 앱의 이용이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한국 앱이 중국적 사회화를 방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표 1. 한국 앱의 이용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국적 사회화			한국적 사회화		
	B	$\beta$	t	B	$\beta$	t
성별	-1.1	-0.10	-1.17	1.8	0.14	1.7
연령	0.49	0.28**	2.91	0.02	0.01	0.09
한국어 수업 여부	-0.2	-0.02	-0.20	-0.72	-0.05	-0.64
한국 거주 의향	-1.8	-0.19*	-2.35	-1.34	-0.12	-1.5
한국 거주 기간	-0.46	-0.16	-1.64	-0.17	-0.05	-0.53
연간 가계소득	0.24	0.08	1.0	0.25	0.07	0.89
중국 앱	0.16	0.15+	2.0	0.14	0.12	1.56
한국 앱	-0.17	-0.17*	-2.17	0.29	0.25**	3.08

+  $p < 0.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동시에, 독립변인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적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앞서 허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구 통계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적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분석했다. 그러나 성별( $\beta = 0.14$ ,  $p > 0.05$ ), 연령( $\beta = 0.01$ ,  $p > 0.05$ ), 한국어 수업 여부( $\beta = -0.05$ ,  $p > 0.05$ ), 한국에 거주 의향( $\beta = -0.12$ ,  $p > 0.05$ ), 한국 거주 기간( $\beta = -0.05$ ,  $p > 0.05$ ), 그리고 연간 가계소득( $\beta = 0.07$ ,  $p > 0.05$ ) 등이 한국적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지만, 통계적 유의 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표 1〉 참조). 결국 제시된 인구 통계 변인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적 사회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통계변인들의 효과가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제시된 한국적 사회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어한 후, 중국 앱의 이용도(가설 2,  $\beta = 0.12$ ,  $p > 0.05$ )가 한국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앱의 이용도(가설 4,  $\beta = 0.25$ ,  $p < 0.01$ )가 한국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결국, 삼자변인들의 효과를 제어한 후 종속변수인 한국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중국 앱은 한국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가설 2), 한국 앱에 대한 이용이 높을수록 한국적 사회화가 향상된다는 것(가설 4)을 발견하였다.

## 6. 결론

이 논문은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과 한국 앱의 이용이 그들의 중국적 사회화와 한국적 사회화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가외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방법을 실시하였다. 물론 이에 앞서 번역 및 역번역 방법을 통하여 한국어 설문지와 중국어 설문지의 내용적 동등성(equivalence)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외 변인군들의 효과를 분석 및 제어 했다. 연령( $\beta = 0.28$ ,  $p < 0.01$ ), 그리고 졸업후 한국에 거주 할 의향( $\beta = -0.19$ ,  $p < 0.05$ )과도 같은 가외변인들이 종속 변인인 중국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분석되었다. 부연설명하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적 사회화가 높아지고, 한국에 거주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중국적 사회화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특히, 나이라는 변인이 사회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구예원·박인권 (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동시에, 성별 ( $\beta = -0.10, p > 0.05$ ), 한국어 수업 여부 ( $\beta = -0.02, p > 0.05$ ), 한국 거주 기간 ( $\beta = -0.46, p > 0.05$ ), 그리고 연간 가계소득 ( $\beta = 0.24, p > 0.05$ )과도 같은 변인들은 종속변인에 실증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시된 인구 통계 변인군(Demographics)에 속해진 다양한 가외변인들의 효과를 제어한 뒤, 중국 앱(가설 1:  $\beta = 0.15, p < 0.1$ )에 대한 이용도와 한국 앱에 대한 이용도(가설 3:  $\beta = -0.17, p < 0.05$ )가 중국적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중국 앱을 이용할수록 중국적 사회화가 유지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고(가설 1), 또한 한국 앱을 이용할수록 중국적 사회화를 늦추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가설 3). 가외 변인군을 형성하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의 효과를 제어한 후, 과연 중국 앱과 한국 앱에 대한 이용도가 한국적 사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즉, 가설 2,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의 이용은 한국적 사회화를 방해한다라는 가설은 기각( $\beta = 0.12, p > 0.05$ )되었고, 가설 4,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국 앱의 이용은 한국적 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beta = 0.25, p < 0.01$ ).

둘째, 가설들의 기각 유무를 통해 볼-로키치와 더 플로러(Ball-Rokeach & Defleur, 1985)가 제시한 미디어 의존 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의 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다. 특히 가설 1과 4가 유의미하게 판명 났는데, 가설 1을 통해, 한국에 유학을 왔을지라도 중국의 소식이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중국 앱은 고국과 관련된 정보를 접촉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고국의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앱의 기능에 중국 학생들이 더욱 의존할 것이라는 미디어 의존 이론의 해석과 일치된다.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가설 4에서 밝혔듯이 한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휴대성이 강한 스마트폰에 한국 앱을 설치하여 한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 획득과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볼-로키치와 더 플로러(Ball-Rokeach & Defleur, 1985)가 제시하는 수용자, 즉 유학생들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볼-로키치와 더 플로러(Ball-Rokeach & Defleur, 1985)가 제안했듯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팽배할수록 미디어 의존도가 커진다고 보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 1의 검증결과는 박정희·성지연(2012)의 재미한인의 문화변용 전략 연구에서, 한국적 가치가 높은 이민자 그룹일수록 한국 미디어의 이용 빈도수가 높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생산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 4의 검증결과는 박정희·성지연(2012)의 재미한인들이 미국문화에 적응을 원하는 그룹일수록 미국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이 논문의 결과가 유사한 것이 발견되는데,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미디어의 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현지 미디어의 영향이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기존 연구(오대영, 2013)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이 논문의 결과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한국 현지 문화의 간접 경험은 중국 유학생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가설 4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휴대성이 강점인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정보 탐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설들의 검증 결과를 통해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 이른바 시소 게임(seesaw game)의 논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중국 유학생들의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적 사회화를 늦추게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과연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중국 앱을 이용하여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시키는 것(가설1)이 한국적 사회화를 방해하는 것(가설2)과 동일한지를 가설 1과 2를 검증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가설 1이 유의미, 그리고 가설 2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하는 것과 한국적 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분석된다. 이러한 제로섬(Zero sum game)은 가설3과 4를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 유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한국 앱의 이용은 중국적 사회화 유지를 방해 하는 것(가설 3)이 한국적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것(가설 4)과 동일한지를 제로 섬(zero sum game)을 게임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서 분석된 가설 1과 가설 2가 상관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3과 4가 상호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호간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독립적인 현상은 베리(Berry, 1997, 2002)의 문화적응 전략 이론과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리(Berry, 1997, 2002)는 이민자들이 다른 환경으로 유입될 경우, 주류사회(여기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적 정체감(여기서는 중국적 사회)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이민자 그룹을 통합그룹(Integration)이라고 지칭했다. 반대로 주류 사회인 한국과 이민자들의 고국인 중국 사회에 부정적인 전략을 동시에 지닌 그룹을 주변화 그룹(Marginalization)이라고 지칭했다. 따라서 베리(Berry, 1997, 2002)의 이론적인 접근은 중국적 사회화를 유지하는 것과 한국적 사회화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간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고, 베리의 이론적 측면이 이 논문에서의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을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넷째, 이 논문이 양적 방법론(Quantitative research method) 중에서 서베이를 사용하여 분석했지만, 향후는 질적 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중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을 사용하여 앱에 대한 이용과 사회화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세부적인 측면의 관점까지 접근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운 추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앱의 이용과 그들의 사회화 변화에 대해 총체적인 입장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양적 방법인 서베이를 통해서, 전체적 관점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시각은 사회적 구조를 설정하고 그 구조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성과 주관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시적인 관점,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나름대로의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들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질적인 방법을 이용한 미시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하여 이 논문의 결과와 비교를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앱에 대한 이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대한 사고도 필요하다. 앱들의 수많은 종류와 분류로 인하여 전체적인 앱의 이용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젊은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 카테고리 중에서 미디어 효과 측정에서도 빈번히 이용되는 TV 영상, 신문, 인터넷, 영화 등으로 구분을 하여 이용량을 측정했다. 앱에 대한 노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고 또한 해석자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그곳이 만들어진 곳의 문화를 표방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큰 영역으로 앱 이용도를 측정했다. 즉, 중국적 문화 가치 그리고 한국적 문화 가치를 표방하는 미디어의 구성체인 앱에 노출이 되면, 중국적 또는 한국적 사회화가 진행된다는 전제였지만, 더욱 통상적으로 앱의 이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구예원·박인권 (2015).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인지와 지역사회 적응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28권 4호, 53-76.
- 김성수·이상경·안효자 (2011). 자발화표본 분석을 통한 필리핀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어휘, 구문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권 1호, 69-88.
- 김진영 (2003). 미디어 의존 이론 연구. <언론과학연구>, 3권 2호, 119-154.
- 김준화·유홍녕·이상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23-41.
- 김혜영 (2015). 다문화 사회의 언어환경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6권(단일호), 119-147.
- 리첸첸·오인수·이수경 (2016).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101-120.
- 맹주역·노옥화 (2015). 한중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중국 사회문화 요소 연구-중국 초등학교 의무교과과정 『품덕여생활(品德與生活)』를 중심으로. <중국 언어연구>, 60권, 397-420.
- 박정익·성지연 (2012) 재미한인의 문화변용전략과 미디어 콘텐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12호, 479-488.
- 선봉규 (2014).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 연구: 중국 조선족과 재일 코리안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6권, 329-357.
- 성시일 (2013). 중국유학생의 한국 유학기간 중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분석. <중국과 중국학>, 18권, 73-97.
- 심귀보·김지윤·이동욱 (2004). 게임 이론에 기반한 공진화 알고리즘.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14권 3호, 253-261.
- 안수근 (2006). 뉴질랜드 거주 교민의 한국어 매체 이용 및 문화적응 요인. <언론과학연구>, 6권 4호, 203-242.
- 양만기. (2013).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확대 방안. <중국인문과학>, 54권, 439-472.
- 오대영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미디어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권 2호, 119-156.
- 이예슬·김은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



- 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권 3호, 295-316.
- 이홍직 (201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스트레스연구>, 19권 2호, 183-194.
- 이호성 (2003). 전통 뉴스 매체와 뉴스 웹 이용이 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매개적 역할. <한국언론정보학보>, 211-247.
- 이유인 (2014). 한국어 학습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한류 드라마 활용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 진수진 · 주현정 · 조연실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이존증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부부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권 1호, 87-98.
- 임지혜 · 최정화 (2009).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5권 2호, 183-206.
- 정유선 (2014).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34권, 447-466.
- 정윤경 (2012). 재한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이용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310-343.
- 정의철 (2013). 다문화-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5-37.
- 정지에 (2010). 문화소비가 중국인과 한국인의 문화동화에 미치는 영향: “한풍” “한류” 현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민진 · 배성만 · 현명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권 4호, 783-797.
- 최혜영 (2015).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권 3호, 1-16.
- 차희원 · 조은영 · 백상기 (2013). 공중외교적 관점에서 본 재외동포의 모국 미디어 이용과 모국 명성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189-220.
- 황상재 · 홍성현 (2012). 북한이탈주민의 온라인·오프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과 정치사회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4호, 351-410.
- Ball-Rokeach, S. J.(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 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 485~510.
- Bathory, P. & McWilliams, W. (1977). Political theory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I. Calnoor (Ed.), *Government secrecy in democracy*, (pp.3~21). New York, NY: Praeger.
- Berry, J. W.,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pp.5-68.
- Chuang, S. F.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values and learning preference: the impact of acculturation experiences upon East As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6(1), 1-22.
- Chudek, M., Cheung, B., & Heine, S. (2015). US Immigrants' Patterns of Acculturation are Sensitive to Their Age, Language, and Cultural Contact but Show No Evidence of a Sensitive Window for Acculturation.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15(1-2), 174 - 190.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1991).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68(4), 781-796.
- Vigers, D. & Tunger, V. (2010). Migration in contested linguistic spaces: The challenge for language policies in Switzerland and Wales. *European Journal of Language Policy*, 2(2), 181-203.

최초 투고일 2018년 6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6일  
논문 수정일 2018년 11월 29일

Abstract

# The Chinese students' usage of APP installed at the smart phone, and their Chinese and Korean socialization\*

**Seung-jun Moon**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ha University

**Bun Woo**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ha University

**Xu Zhuo**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ha University

Recently, the smart phone is considered as an essential product among young gener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Chinese students' usage of APP installed at the smart phone affected on their socialization. Using by a translation and back translation method, two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 like Korean and Chinese questionnaires were made.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effects of artifact, a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was used. Finally, it was found out that the usage of smart phone with the Chinese AP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ir Chinese socialization but was not significant with Korean socialization. Also, it was found out that the usage of the smart phone, especially, the Korean AP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ir Chinese socialization negatively and was significant with Korean socialization positively.

**Keywords:** Chinese students, socialization, smart phon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